

Rising Biz & Star |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만나다

“카드 하나로 즐기는 서울 투어…관광복지의 시작이죠”

〈‘디스커버 서울 패스’ 카드〉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 폴리스일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78.8%가 찾는 제1의 관광명소다. 2017년 방문 관광객이 1333만6000명이었으니, 대략 1050만 명이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았다. 이런 서울의 관광산업을 책임진 곳이 바로 서울관광재단이다.

지난해까지는 주식회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관광산업 진흥을 맡았으나 5월1일 새로 관광재단이 출범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공기업(공사) 형태로 관광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즉,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과 목표로 매년 상주인구에 버금가는 방문객이 찾는 대도시의 관광산업을 관리, 육성하는 도전이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서울관광재단의 첫 수장이 4월23일 부임한 이재성(59) 대표이사다. 이 대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간 근무하며 국제관광, 국내관광, MICE, 관광정책, 경영까지 관광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관광에 관해서는 사전·수전·공중전에 게릴라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인 셈. 이제 그의 손에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을 가야하는 신생 조직의 방향키가 맡겨졌다.

관광지 무료 입장에 면세점 할인까지 반응 좋아 72시간짜리 카드도 출시 시민들도 함께 누리는 콘텐츠 개발

최근 북촌·서촌 거주민 피해 부작용 양적 관광→질적 관광 전환 필요성



“이제는 얼마나 많이 왔느냐는 양적인 관광에서 얼마나 만족했느냐는 질적인 관광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때입니다.” 5월 재단으로 새로 출범한 서울관광재단의 초대 수장을 맡은 이재성 대표는 “가치관광(벨류 투어리즘)을 추구하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지역 방문객, 서울시민 등이 고루 누리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한국의국어대 서반아어과 졸업(1982년), 연세대 석사(2000년), 경희대 관광학 박사(2013년). 한국관광공사 입사. 인사부, 시드니지사, 기획조정실, 런던지사장, 국내사업부장, 해외마케팅실장, 정책사업본부장, 국제관광마케팅본부장, 부사장·경영본부장, 국내관광산업본부장 역임(1985~2017년)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관광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조직이 왜 주식회사에서 재단으로 변경했나.

“10년 전 서울관광마케팅을 만들 때는 민간과 공적 영역을 아울러 도시마케팅을 제대로 하자는 목표였다. 회사 수익으로 필요한 관광재원을 마련한다는 ‘빅 픽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수익으로 바라보다 보니 콘텐츠 개발도 안되고, 수익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광산업 진흥이란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초기 투자자본이 소진된 상황에서 이대로

는 안될 것 같아 청산을 하고 재단을 출범했다”

“출범 첫해의 목표나 사업 계획은.

“올해는 이미 사업목표와 예산이 정해져 앞으로 추구할 우리의 방향 설정과 그에 맞춘 내년도 사업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 관광’(value tourism)이란 개념을 새로 정립했다. 과거 수익성에 중시한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관광과 마이스(MICE 국제회의의 컨벤션 인센

티브 관광)만 신경을 썼다면 재단이 되면서 지방서 서울로 오는 국내여행(인트라바운드)과 서울 시민이 누려야 할 관광복지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DSP 카드가 기대하는 사업이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DSP는 ‘디스커버 서울 패스’의 약자다. 정해진 시간 동안 서울 관광명소를 무료 입장하고, 면세점, 공연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로 금액을 충

전하면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다. 현재 현장 반응이 무척 좋아 기존 24시간, 48시간에 이어 새로 72시간짜리 카드를 출시했다. 공항철도 편도이용과 따릉이 자전거 24시간 이용, 광화문 출발의 시티투어 버스 이용 기능도 새로 추가했다.”

“들어보면 기능이 무척 다양한 데, 외국인 관광객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으로 인천공항과 CU 편의점 체인, 직영 관광안내센터 등에서 판매한다. 앞으로는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인이 쓸 수 있는 카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도시들과 연계해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동북아 패스로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다.”

“늘어나는 수에 비해 외래 관광객이 서울 방문서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 높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일상을 떠나면 모든 게 관광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는 외국인에게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된다.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무언가 보여 줄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관광콘텐츠가 아직 다양하지 못하다. 앞으로 25개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정례적으로 관광 관련 협의를 하려고 한다.”

“요즘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거주민이 피해를 입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북촌이나 서촌 지역에서 최근 발생하는 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아가는 것이 질적 관광의 핵심이다. 중국 관광객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일시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의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오버투어리즘은 일본이나 태국 정부들도 고민하는 관광산업의 딜레마다. 마침 9월에 서울서 열리는 도시관광 총회, 공정관광 총회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끝으로 요즘 어느 분야든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다.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은.

“현재 논의 중인 것이 관광안내소를 활용한 고용창출이다. 또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지하철 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투어리스트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 공간에 청년실업, 은퇴자, 실버세대 중 외국어 능력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생각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쉽지 않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작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어폰 연결하면 양쪽 귀로 사용 가능(기본제공)

이런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듣 크게 듣고 싶다.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서울상담지사: 02-522-2710

2018년 최신품

3000

Q80

길이: 5cm
무게: 7g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3000

2018년 최신품

3000

02-522-2710

2017 서울 관악 1247호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료상담전화: 1644-2464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썸모아

저출력 레이저 허리통증전문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허가번호 제허14-842 **인체에 무자극/안전한 방법**

허리에는-허리 **愛**

수술을 하지 않고도 허리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허리에는 1회 사용시간 40분, 자동세팅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1회 사용시간 40분이 자동 세팅되며 하루에 2번 사용을 권장하며 4시간 한번 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저출력 레이저는 안전합니다.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허리통증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며 통증은 가라앉고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650nm 파장과 830nm 파장을 방사하며 10만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3. 전국 100여개 통증클리닉에서 사용중...
소모품이 없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허리통증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형이어서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 (허리에 사용하는 허리띠 기본제공)

허리 **愛**는 이런 분께 권합니다.
허리에는 반복적인 통증을 위해 고안된 제품입니다.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인체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사용중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명이나 상처를 입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염진통제와 같은 일시적인 효과 아닌 통증을 완화시켜 주어 만족스러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무료상담전화: 1661-122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서울상담지사: 02-522-2710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허리통증 환자 중 허리통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단 2%.

수술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통증 등은 적절한 물리치료를 스트레칭 등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품질 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합니다.
제조공정, 원재료, 완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증번호 : KTC-ABB-130029

의료기기 제조품질 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합니다.
제조공정, 원재료, 완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제품명: 의료용 레이저조작기

레이저파장: 650/830nm

레이저출력(대출력): 5mW

리튬이온배터리: 3.8V / 3050mA

아암터: 5V / 1000mA

사이즈: W125xD94xH18mm

무게: 195g